주석 붐과 말라야 배후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라룻과 중국계 광부

말레이반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주석을 캐 왔지만, 근대 주석 산업은 페락 북부 라룻(Larut) 지역에서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848년 말레이 족장 롱자파르(Long Jaafar)는 클리안파우(Klian Pauh)와 클리안바루(Klian Bharu)에서 주석을 발견하였고, 페낭에 다녀오면서 광상을 개발할 중국인 20명을 데려와 채굴을 시작하였습니다.[1] 이들은 뒤따를 수많은 이주민의 첫 무리였습니다. 해협식민지의 중국계 상인들이 조직하고 자금을 댄 중국계 노동력이 반도 서쪽 구릉지대를 따라 광산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땅을 소유한 말레이 족장들에게는 이를 개발할 노동력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중국계 우두머리들에게 채굴권을 내주고, 광석에 대한 세금을 거두었으며, 광산의 조직은 광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광부들은 중국 남부에서 모집되어 페낭과 싱가포르를 거쳐 들어왔고, 뱃삯과 식량, 도구를 장래 임금을 담보로 선대받았습니다. 이러한 선대 자금은 해협 항구의 상인과 징세청부업자들에게서 나왔고, 이들은 주석으로 상환받았습니다.[2] 이렇게 하여 제A편 제IV장에서 서술한, 도시 상인에서 조호르의 감비어 재배자로 이어지던 신용 사슬이 페락과 슬랑오르의 주석 지대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드래블(Drabble)은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1840년대부터 페락과 슬랑오르에서 대규모 광상이 발견된 뒤 중국계 이주민이 이 산업을 장악하였다는 것입니다.[3] 슬랑오르에서는 클랑 계곡의 주석 광산을 중심으로 쿠알라룸푸르라는 도시가 성장하였습니다. 1860년대 말 이 도시의 세 번째 카피탄 치나(Kapitan China)가 된 얍아로이(Yap Ah Loy)는 현지 주석 시장을 장악하여 재산을 모았고, 도시를 황폐하게 만든 내전 이후 광업을 재건하였습니다.[4]

비밀결사, 라룻 전쟁, 팡코르 조약

광산 공동체는 비밀결사가 조직하였습니다. 비밀결사는 광부를 모집하고 그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였으며, 물과 땅과 수입을 두고 서로 싸웠습니다. 라룻에서는 해산(Hai San)과 의흥(Ghee Hin)이 1861년부터 1874년 사이에 네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1861–1862년의 첫 번째 분쟁은 클리안바하루(Klian Baharu) 광산의 물을 둘러싸고 시작되어, 롱자파르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응아이브라힘(Ngah Ibrahim)이 의흥에 보상금 1만 7,447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1872년 2월의 살인 사건 이후 의흥은 해산을 라룻에서 몰아냈고, 이에 약 1만 명의 해산 회원이 페낭으로 피신하였습니다.[5]

혼란이 해협 항구들의 교역을 위협하자 페낭의 중국계 지도자들은 식민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해산의 지도자 정경규(Chung Keng Quee)는 1872년 9월 26일 다른 중국계 지도자 44명과 함께 그러한 청원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페락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은 갈등에 말레이적 차원을 더하였습니다. 왕위 주장자 가운데 한 명인 라자 압둘라(Raja Abdullah)가 영국의 지원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대신하여 신임 총독 앤드루 클라크(Sir Andrew Clarke) 경에게 보낸 서한은 싱가포르에서 탄킴쳉(Tan Kim Cheng)과 상인 윌리엄 리드(William Read)가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식민지의 상업 공동체가 주석 국가들의 사태를 얼마나 면밀히 주시하였는지 보여 줍니다.[6]

클라크는 팡코르섬 앞바다에서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874년 1월 20일 식민지 기선 플루토*(Pluto)*호 선상에서 체결된 조약은 압둘라를 페락의 술탄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영국 주재관(British Resident)을 두게 하였습니다. 주재관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말레이의 종교와 관습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 조언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트리스트럼 스피디(Tristram Speedy) 대위가 라룻 행정을 맡도록 임명되었고, 라룻은 '영원한 평화'를 뜻하는 타이핑(Taiping)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874년에는 숭가이우중(Sungei Ujong)에, 1875년에는 슬랑오르에도 주재관이 파견되었습니다.[7]

주재관 제도에서 말레이 연합주로

주재관 제도는 공식적인 병합 없이 주석 국가들을 영국의 세력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재관들은 세입, 경찰, 법원을 조직하는 한편 광석을 해안으로 실어 나를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였습니다. 1885년 타이핑과 포트웰드(Port Weld)를 잇는 12.8킬로미터의 철도로 페락이 가장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파항은 1888년 영국의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다. 1895년 연합조약(Treaty of Federation)으로 페락, 슬랑오르, 느그리슴빌란, 파항이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하는 말레이 연합주(Federated Malay States)로 통합되었습니다. 조약은 1896년 7월 1일 발효되었고, 프랭크 스웨트넘(Frank Swettenham)이 초대 총주재관(Resident-General)이 되었습니다.[8]

재정 실적은 이 변화의 규모를 보여 줍니다. 이들 국가의 세입은 1875년 40만 9,394달러에서 1905년 2,396만 4,593달러로 늘었습니다. 그 대부분은 수출세, 토지 임대료, 광부들의 소비에 과세하던 징세청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주석에서 나왔습니다. 1883년 말레이 국가들은 이미 세계 최대의 주석 생산지였습니다. 19세기 말 말라야의 주석 수출은 약 5만 2,000미터톤에 이르러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9]

유럽 자본과 버킷 준설선

세기가 바뀔 무렵까지 중국계 광부들은 노천 갱, 수력 세광, 체인 펌프 같은 노동집약적 방법으로 광상을 개발하였습니다. 유럽계 회사들은 중장비와 런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고 이 산업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들의 결정적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인 혁신은 버킷 준설선이었습니다. 준설선은 중국식 방법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규모로 저품위 충적 광상을 개발할 수 있었고, 1912년부터 말라야에 등장하였습니다.[10]

소유 구조의 변화가 뒤따랐습니다. 드래블에 따르면 1929년까지 유럽계 생산자가 말라야 생산량의 61%를 차지하였습니다. 다른 추정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말라야 주석의 58.6%를 유럽계 회사가, 41.4%를 중국계 회사가 생산하였다고 봅니다.[11]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시점과 기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한 세대 만에 이 산업이 해협 항구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중국계 사업에서,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의 에이전시 하우스를 통해 운영되는 런던 회사들이 더 큰 몫을 차지하는 혼합 산업으로 넘어갔음을 보여 줍니다.

싱가포르의 몫: 제련과 해협무역회사

주석 경제에서 싱가포르의 위치는 가공과 교역에 기반하였습니다. 광산에서 나온 광석은 세계 시장에서 팔리기 전에 주괴로 제련되어야 했는데, 1880년대 말까지는 그 상당 부분이 말레이 국가들의 중국계 제련업자들에 의해 제련되거나 광석 상태로 선적되었습니다. 1887년 스코틀랜드 사업가 제임스 소드(James Sword)와 독일 기업가 헤르만 뮐링하우스(Herman Muhlinghaus)는 주석 제련 동업 관계를 맺었고, 이는 1887년 11월 8일 자본금 15만 달러의 해협무역회사(Straits Trading Company)로 싱가포르에서 법인화되었습니다.[12]

회사는 시가지 맞은편 항구 안의 섬인 풀라우브라니(Pulau Brani)에 제련소를 세웠습니다. 1890년부터 가동된 이 제련소는 싱가포르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 산업으로 소개되며, 드래블은 더 일반적으로 싱가포르가 광석을 주괴로 제련하는 주요 중심지였다고 지적합니다.[13] 1895년 무렵 이 제련소는 연간 1만 4,000톤의 주석을 처리할 수 있는 용광로 12기를 가동하였다고 합니다. '해협 주석(Straits tin)'이라는 이름으로 팔린 그 제품은 뛰어난 순도로 명성을 얻었습니다.[14]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제련소는 주석 가격이 결정되던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그리고 창고증권과 선하증권을 담보로 선적 자금을 대던 은행들과 싱가포르를 연결하였습니다. 또한 식민지에 말레이 국가들의 번영에 대한 이해관계를 안겨 주었고, 이는 영국의 개입을 요구하는 상업 로비를 강화하였습니다. 회사 자체도 놀라울 만큼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도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상장되어 있고, 부동산, 호텔, 투자로 사업을 다각화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상장 주석 생산업체인 말레이시아 제련공사(Malaysia Smelting Corporation)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자사의 사업을 이토록 직접적으로 19세기 원자재 경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주

1. Wikipedia, “Long Jaaf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48년 클리안파우와 클리안바루에서 주석이 발견되었고 그곳에서 채굴을 시작함; 1848년 페낭에 가서 채굴을 시작하기 위해 “managed to bring back 20 Chinese men”. ↩

2. 해협 상인과 징세청부업자들이 광석 인도를 조건으로 쌀, 아편, 도구를 선대하는 방식으로 중국계 주석 채굴에 자금을 댄 데 관해서는 Wong Lin Ken, *The Malayan Tin Industry to 1914*,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65, 제1–2장 참조. ↩

3. John H. Drabble, “The Economic History of Malaysia”, EH.Net Encyclopedia, ed. Robert Whaples, 2004년 7월 31일: 1840년대부터 페락과 슬랑오르에서 대규모 광상이 발견된 뒤 중국계 이주민이 주석 산업을 장악함. ↩

4. Wikipedia, “Yap Ah Loy”(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쿠알라룸푸르의 세 번째 카피탄 치나, 정보상자에는 1868–188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은 1869년 류음콩(Liu Ngim Kong)의 사망 후 그 지위를 계승하였다고 기술함; 주석 시장 장악을 통해 부를 축적함; 1867년에 시작된 슬랑오르 내전 이후 광업을 재건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5. Wikipedia, “Larut War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61–1862년의 첫 번째 전쟁은 클리안바하루 광산의 물 이용을 둘러싼 것이었으며, 응아이브라힘이 의흥에 보상금 1만 7,447달러를 지급함; 1872년 2월 16일 이아쿤(Lee Ah Kun) 살해 이후의 세 번째 전쟁에서 “about 10,000 Hai San fled to Penang”. ↩

6. Wikipedia, “Larut War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정경규는 1872년 9월 26일 다른 중국계 지도자 44명과 함께 청원서에 서명함; Wikipedia, “Pangkor Treaty of 1874”(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클라크는 1873년 11월에 부임함; 싱가포르에 있던 탄킴첸과 윌리엄 리드가 압둘라를 위해 클라크에게 보낼 서한을 작성함. ↩

7. Wikipedia, “Pangkor Treaty of 1874”(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74년 1월 20일 식민지 기선 *Pluto*호 선상에서 체결됨; 주재관의 조언은 “must be asked and acted upon on all questions other than those touching Malay religion and custom”; 1874년 숭가이우중, 1875년 슬랑오르에 주재관 파견; 1888년 파항이 영국의 보호 아래 놓임. Wikipedia, “Larut War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트리스트럼 스피디 대위가 라룻 행정을 맡도록 임명됨; 라룻은 ‘영원한 평화’를 뜻하는 타이핑으로 개칭됨. ↩

8. Wikipedia, “Tin mining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 1885, 12.8 km of railway was constructed connecting Taiping to Port Weld in Perak.” Wikipedia, “Federated Malay State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95년 연합조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 조약은 “formally went into effect on 1 July 1896”; 구성국은 슬랑오르, 페락, 느그리슴빌란, 파항;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프랭크 애설스턴 스웨트넘(Frank Athelstane Swettenham)이 1896년 1월 1일부터 초대 총주재관. ↩

9. Wikipedia, “Federated Malay State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해협달러 기준 세입표: 1875년 세입 40만 9,394달러; 1905년 세입 2,396만 4,593달러. Wikipedia, “Tin mining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 1883, Malaysia was the largest tin producer in the world.” John H. Drabble, “The Economic History of Malaysia”, EH.Net Encyclopedia, 2004년 7월 31일: 19세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기 말 말라야의 주석 수출은 약 5만 2,000미터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조금 넘었음. ↩

10. John H. Drabble, “The Economic History of Malaysia”, EH.Net Encyclopedia, 2004년 7월 31일: 버킷 준설선은 1912년부터 등장함; 1929년까지 유럽계 생산자가 말라야 생산량의 61%를 차지함. ↩

11. Wikipedia, “Tin mining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말라야 주석의 58.6%는 유럽계 회사가, 41.4%는 중국계 회사가 채굴함. ↩

12. Wikipedia, “Straits Trading Company”(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87년 제임스 소드와 헤르만 뮐링하우스의 주석 제련 동업 관계로 설립됨; 1887년 11월 8일 자본금 15만 달러로 싱가포르에서 법인화됨; 현재 SGX에 상장(S20)되어 있으며 호텔·부동산 관리와 금융 투자로 다각화하였고, 채굴과 제련은 지분 73%를 보유한 자회사 Malaysia Smelting Corporation Berhad를 통해 수행함. ↩

13. Roots.gov.sg, National Heritage Board, 소장품 항목 “View of Pulau Brani”(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a tin smelter was built on the island by the Straits Trading Company in 1890”, 싱가포르 최초의 근대 산업. John H. Drabble, “The Economic History of Malaysia”, EH.Net Encyclopedia, 2004년 7월 31일: 싱가포르는 광석을 주괴로 제련하는 주요 중심지였음. ↩

14. NLB Infopedia, “The Straits Trading Company Limited”(SIP_1247): 1895년 용광로 12기와 연간 1만 4,000톤의 처리 능력; 1902년 가스 연소식 용광로 15기로 교체; “Straits Tin”의 순도에 대한 명성.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